致 辭

전 상 우 특허청장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마흔 두번째 「발명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시는 발명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 ’는 말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총 10만 6천건이었던 특허 출원은 지난해 16만 3천건으로 무려 6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일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명실상부한 세계 4대 출원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발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오신 발명인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와 지식경제로의 이행으로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등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환경과 기업의 경쟁의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으며, 고유가와 환율하락, 기술무역 수지적자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동력은, 바로 발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발명인 여러분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참여정부는 발명인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명의 토대가 되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특허창출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에서의 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발명역량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 구축,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에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명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 당시 22.6개월 걸리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작년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9.8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심사품질도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발명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국내외 거센 도전과 시련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발명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든든히 밝혀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주역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인 여러분이셨습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발명강국,지식강국 시대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발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